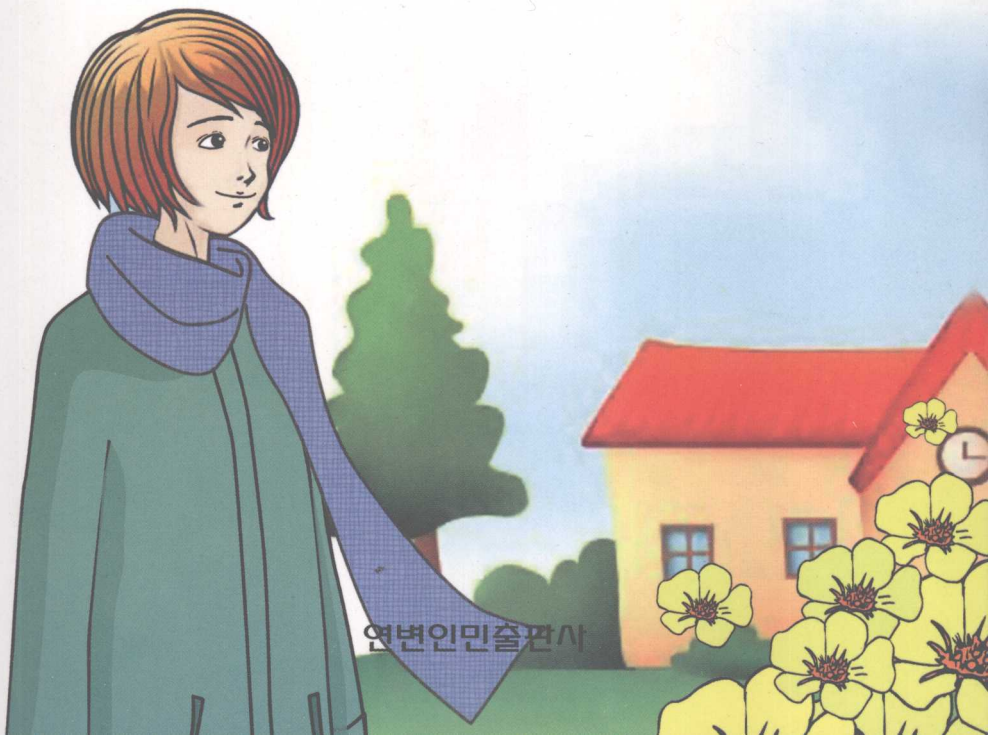




소학생 필독서

꼬마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빙심 저



연변인민출판사

소학생필독서

꼬마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빙 심 저
량복선 번역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설화

책임교정: 윤동혁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寄小读者: 朝鲜文 / 冰心著; 梁福善译.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11

ISBN 978-7-5449-0054-6

I. 寄… II. ①冰…②梁… III. 儿童文学-散文-作品集-中国-现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6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169563号

寄小读者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市京源彩色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50×1168 1/32 印张: 7.5 字数: 170千字

标准书号: ISBN978-7-5449-0054-6(民文)

版次: 2007年11月第1版

2007年11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12.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일러두기

꼬마친구들앞에 놓인 이 책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저명한 작가 빙심할머니의 문학정품입니다.

빙심할머니는 1900년에 태어났으며 본명은 사완영이고 복건성 장락사람입니다. 빙심할머니는 70여년간의 신근한 로동으로 《문학창작의 빛나는 성과》를 바껴왔습니다. 《별나라》, 《봄물》, 《우린 봄을 깨웠어요.》... 등 작품은 중국 당대문학의 진귀한 보물로 되고있으며 《작은 굴뚝》은 수천만 꼬마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습니다. 특히 《꼬마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한세대 한세대 소년아동들에게 용기와 호기심을 부여하고있으며 광활한 세계로 나아가며 자신을 찾도록 소년아동들을 깨우쳐주고있습니다. 저명한 작가 파금선생은 빙심할머니의 작품을 회고할 때 이렇게 말씀한적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모두 고독한 아이들이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따사로움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나에게 생활의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꼬마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꼬마독자들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와 《꼬마독자들에게 보내는 세번째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세번에 걸쳐 쓴 이 편지들은 빙심할머니가 갈지 않습니다.

세 시기에 쓴 작품들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작가로서 복잡다단하고 천태만상인 사회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순진하고 투명한 어린이의 눈과 진리를 추구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동심으로 관찰하고 사색하고 발견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어린이의 마음, 취미, 생각으로 꼬마독자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것과 자기의 간절한 념원을 감칠맛있게 차근차근 서술하였습니다. 때문에 워낙 쉽게 움직이는 어린이들의 심금을 더욱 쉽게 울려주어 감정상의 공명을 불러일으킬수 있었습니다. 빙심할머니의 글은 활달하고 대범하며 새롭고 뜻이 깊으며 기백이 흘러넘치고 자유분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미적향수와 지혜의 계발을 받게 합니다.

《꼬마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빙심할머니가 고향을 떠나 몇만리 떨어져있는 외국에 가서 3년동안 류학하는 기간에 얻은 전문과 체험을 적은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쇠퇴몰락하는 시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여 빙심할머니는 산의 이야기, 바다의 풍채, 호수의 운치, 심오한 수림, 망망한 모래밭, 웅장한 폭포에 대하여 쓰고 또 끝없이 펼쳐진 전야로부터 새, 고양이, 강아지, 개구리, 나비, 꿀벌, 나무 등... 무릇 자연계의 모든 사랑스러운것을 써서 어린이들에게 비할바 없이 신기한 대자연의 오묘한 비밀을 보여줌으로써 대자연을 사랑하고 탐색하려는 어린이들의 욕구를 격발시켜주었습니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글줄마다에 조국과, 어머니, 친우 그리고 꼬마친구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련모의 정이 흘러넘치고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도록 어린이들을 교양해야 합니다. 《진지한 사랑의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눈물이랍니다. 수정같은 맑은 눈물이 맺힌 눈은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존귀한 그림이랍니다.》우리는 반드시 정의로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설사 북경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나의 사랑이 있어

요. 나의 사랑이 있다면 모든것이 있는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랑속에서 투쟁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리상적 사회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쟁탈전을 겪어야 얻어지는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학적재능이 뛰어나고 걱정이 흘러넘치는 글들은 젖물마냥 하나하나 어린 마음을 축축히 적셔주고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후 빙심할머니는 또 《교마독자들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바로 중국이 세계적으로 총명과 재질을 뿔뿔하게 자랑할 때이며 나라의 주인으로 된 중국인민들이 의기분발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을 때였습니다. 때문에 이 14편의 편지에는 마디마다 구절마다 기쁨과 걱정이 흘러넘치고있습니다. 빙심할머니는 력사로부터 현실을 썼는데 매편마다 관찰, 비교, 실천을 통하여 하나하나의 심각한 철리를 제시해주고있습니다. 이를테면 천안문광장의 변화를 씬으로써 날따라 새롭게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었고 외국어린이들의 상황과 중국어린이들의 생활을 대비해씀으로써 나라를 사랑하고 당을 사랑하도록 어린이들을 교양하고있으며 해방전에 수많은 밭과 사람을 훼손시키던 화원구에 지금은 만민의 행복을 마련해주는 동풍수로를 건설했다는것을 씬으로써 대만의 어린이와 미국 등 자본주의나라의 어린이들을 잊지 말도록 어린이들을 깨우쳐주고있으며 미국에서 아동동화를 내지 못하게 금지시킨 사실을 씬으로써 《인권》을 부르짖는 서방 《자유》나라의 허위성과 엄중한 종족차별에 대하여 폭로비판하였습니다. ... 빙심할머니는 중국에 있을 때나 애급, 이딸리아, 영국 등 다른 나라에 있을 때나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들을 잊지 않았으며 작가의 책임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빙심할머니는 자신의 글에서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계발하고 타이르고 호소하였습니다.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혁명렬사들이 붉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머리우에서 나뭇기는 오성붉은기가 있을수 없습니다. …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민대회당 천정에 새겨진 해바라기마냥 영원히 중국공산당을 상징하는 빛발뿌리는 붉은 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기 위하여 끝까지 분투합니다!》

보십시오, 구절마다, 마디마다에 위대한 애국주의정신과 숭고한 국제주의적지조가 빛발치고있는 이 진정이 흘러넘치는 글은 시시각각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분발노력하도록 우리들을 독촉하고있습니다.

《4인무리》가 분쇄된후 빙심할머니는 또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필을 들어 《꼬마독자들에게 보내는 세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빙심할머니는 꼬마친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인젠 걸림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새로운 장정을 시작하여 네가지 현대화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임무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은 이 《임무》을 떠맡기 위해서 꼬마친구들은 지금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간고분투해야 합니다.》고 일깨워주었습니다. 《4인무리》시기에 혼란되었던 사상과 인식에 비추어 빙심할머니는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한 청결로동자가 주총리를 그리는 한쪽의 그림으로부터 로농홍군의 우수한 작품을 실례로 삼아 우수한 혁명전통을 발양하며 공중도덕을 지키며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하며 《반드시 〈4인무리〉의 여독을 숙청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공공재물을 사랑하는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고 꼬마친구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를테면 팍말약할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자신의 80여년간의 경력 그리고 한 《3호》학생의 체험을 실례로 일본일초의 시간을 따져가며 과학적으로 시간을 배치하여 《혁명적리상을 품고 력대의 과학기술을 착실하게 잘 배우기에 힘쓰며 새로운 시기의 총적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시시각각 준비해야 한다.》고 어린이들을 고무격려하였습니다.

이를테면.《지식은 곧 힘입니다.》 빙심할머니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머리를 풍부히 하고 《생활지식의 보물고》에 들어가서 탐색하면서 자신을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네가지 현대화의 길에서 《비할바 없이 굳센 전사》로 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열정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빙심할머니는 언제나 평화와 친선을 잊지 않았습니다. 빙심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인민들지간의 우의는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친선을 키우고 촉진해야 합니다.》《청소년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미래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 및 전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속합니다. 청소년들은 이 세계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건설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래요. 빙심할머니의 말씀은 얼마나 적시적이고 정확합니다!
까!

빙심할머니는 어느 시대든지 물론하고 모두 어린이들의 실재로부터 출발하여 교묘하고도 실제에 맞게 인생의 리해관계와 생활의 철리를 일깨워주었으며 어린이들에게 풍부하고도 아름다운 정신적식량을 공급해주었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이 세부분으로 나뉜 편지들은 편편마다 동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중하여 말하

고싶은것은 해방전과 해방후 작가의 사상, 감정의 변화에 따라 편지도 변화를 가져왔다는것입니다. 해방전에는 작자의 동심과 사랑의 마음이 중류에 머물러있으면서 탱탱한 감정과 무형의 비애를 나타내면서 인간의 천성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었지만 해방후에는 밝고 뚜렷한 기쁨과 힘껏 향상하려는 정신이 흘러넘치면서 비할바 없이 넓고 깊은 인간의 숭고한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꼬마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마음》으로 쓴 글이기때문에 반드시 《마음》으로 그 뜻을 음미해야 하며 구절마다 《사랑》으로 이루어졌기에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꼬마친구들이 한없이 즐겁고 유익한 계발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손 신

1997년 10월 19일

차 례

출판설명	(1)
일러두기	(1)

교마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 1	(3)
편지 2	(5)
편지 3	(9)
편지 4	(13)
편지 5	(15)
편지 6	(18)
편지 7	(21)
편지 10	(26)
편지 11	(34)
편지 12	(41)
편지 14	(46)
편지 15	(53)
편지 17	(60)
편지 18	(63)
편지 19	(78)

소학생필독서

편지 20		(85)
편지 22		(90)
편지 25		(94)
편지 26		(99)
편지 27		(104)
산중잡기		(108)
편지 29		(129)

표마독자들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

편지 1		(135)
편지 2		(138)
편지 3		(141)
편지 4		(144)
편지 5		(148)
편지 6		(152)
편지 7		(155)
편지 8		(158)
편지 9		(163)
편지 10		(168)
편지 11		(172)
편지 12		(176)
편지 13		(179)
편지 14		(184)

교마독자들에게 보내는 세 번째 편지

편지 1		(191)
편지 2		(194)
편지 3		(198)
편지 4		(202)
편지 5		(205)
편지 6		(209)
편지 7		(213)
편지 8		(217)
편지 9		(220)
편지 10		(223)

꼬마독자들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



편지 1

구면인듯한 꼬마친구들:

나는 병든 몸으로 먼길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이 두석달 동안은 글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어제 《조간신문》부록을 보니까 《아동세계》란을 특별히 설치하였더군요. 그래서 기쁜김에 또 허약한 손에 필을 들어 사랑하는 꼬마친구들에게 첫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첫편지이니 아마도 나 자신을 소개해야 될것 같아요. 꼬마친구들이 많이 량해해주기를 바래요. 나는 꼬마친구들의 천진한 대오에서 떨어져나온 리탈자예요. 하지만 한가지 일만은 아직까지도 나를 자부심에 들뜨게 하지요. 그것은 바로 나도 지난날에는 어린이였고 지금도 가끔 어린이로 될 때가 있다는거예요. 내가 다른 세계에로 갈 때까지 나의 이 천진한 마음을 지니게 하기 위하여 꼬마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바이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꼬마친구들의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충실한 벗으로 되기 위하여 영원히 분투노력할거예요.

꼬마친구들, 나는 곧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게 돼요. 나는 이번 여행을 아주 기쁘게 생각해요. 여행가운데서 더 많은 자료를 얻어 이다음 편지에 더 새롭고 신기한 일들을 꼬마친구들에게 알려줄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가는 곳은 바로 지구의 저쪽에 있어요. 나에게는 남동생 셋이 있는데 제일 작은 동생은 13살밖에 안되지요. 동생은 지리책을 읽고 지구가 둥글다는것을 알고는 나에게 우스개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어요.

《누나, 누나가 간 다음 우린 누나가 보고싶으면 참대장대로 마당에 구멍을 뚫겠어요. 그래서 누나가 사는 그곳 마당에까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누나를 내다보겠어요. 누나가 그동안

살졌는지 여위었는지 보게 말이에요.》

표마친구들이 말해봐요, 그게 어디 될 말인가요? 나에게는 또 네살난 표마친구가 있어요. 그 애는 나를 보고 이렇게 묻겠지요.

《고모, 고모가 가는 곳은 전문(북경의 前門)보다 더 먼가요?》

그래 표마친구들이 말해봐요. 지구의 저쪽이 멀겠나요? 아니면 전문이 멀겠나요?

나는 부모형제들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멀리 가게 되었어요. 비록 시간은 길지 않다 하지만 마음이 몹시 괴로워요. 만약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에 아버지 어머니의 무릎위에 앉아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표마친구들이 수만리 떨어진 이역땅에서 한 열정적이고 충실한 친구가 이런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을씨년스러운 날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고있다는것을 생각할수 있을까요? 가령 그것이 일시적인 순진한 동정이라 할지라도 지구 저쪽에 떨어져있는 나는 무한한 기쁨과 위안을 느낄거예요.

표마친구들, 나는 째이 나는대로 편지를 보내 장기적으로 편지거래를 끊지 않을거예요. 혹시 오래동안 편지를 끊었다 해도 표마친구들이 용서해주기를 바래요. 나는 동심이 우려날 때가 아니면 절대 필을 들지 않아요. 어른들의 그 번잡한 마음으로는 이런 편지를 쓸수 없으니까요. 이 점은 표마친구들이 많이 양해하고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바래요.

그럼 이만 그치겠어요. 지금 나의 이 마음은 뭐라 형용할수 없어요. 나는 지금 무한한 영광을 느껴요.

빙심으로부터

1923년 7월 25일

편지 2

고마친구들:

두번째 편지에서 직접 이런 가슴아픈 일을 알고싶지 않지만 작년부터 이 일이 내내 가슴에 걸려 티없이 순결한 고마친구들 앞에서 참회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어요.

작년 봄의 어느날 저녁이였어요. 이미 9시가 지나 매우 조용했어요. 동생들은 이미 잠들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탁에 마주앉아 책도 보고 과일도 자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어요. 나도 한쪽옆에 놓인 의자 등받이에 기대서서 책을 보고있었어요. 그때는 모든것이 평화롭고 안온했어요.

이때 쥐새끼 한마리가 살금살금 탁상밀에서 기여나오더니 땅에 떨어진 과자부스레기를 먹고있었어요. 보배 아주 작은 새끼쥐였어요. 새끼쥐는 겁나하는양이 없이 태연스레 과자부스레기를 먹으면서 대가리를 들고 나를 올려다보는것이였어요. 나는 놀람기도 하고 회한하기도 하여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바람에 아버지와 어머니도 내려와 쥐를 보았어요. 우리가 그처럼 자기를 지켜보고있는데도 쥐는 달아날줄 모르고 의연히 자기 먹이를 찾아 먹고있었어요. 등불빛에 보이는 쥐는 너무나 작은 새끼쥐였어요. 재빛나는 털에 날렵한 몸뚱이, 작은 눈은 불빛에 유난히 반짝이고있었어요.

고마친구들, 제발 나의 참회를 받아주세요. 글썄 나는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어망결에 손에 쥐였던 책으로 새끼쥐를 살작 덮었던거예요. 하느님 맙소사! 새끼쥐는 그래도 달아날줄 몰랐어요. 종이장사이로 나는 그놈의 몽글몽글한 몸뚱이를 감촉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은 반항할 녀름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웅크리고있는거였어요.